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배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동 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명칭: 임핑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신제 실시
- 예약: www.rpdynashy.co.kr 0801-320-7700

허정무호 사우디전 공격수 '무한 경쟁'

"경쟁은 할수록 좋다. 선수는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강해진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한국시간 20일 새벽 1시35분)을 앞두고 던진 화두는 '경쟁'이다.

허정무 감독은 17일(한국시간) 대표팀이 무한경쟁으로 전력 상승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사우디전 베스트 11 구성에 '행복한 고민'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사령탑으로 복귀한 허정무 감독은 지난 15일 카타르와 평가전까지 15차례(7승7무1패)의 A매치에서 총 51명을 기용했고 이중 21명이 데뷔전을 치렀다. 급격한 세대교체로 경기내용이 좋지 않을 때는 '무모한 실험'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기성용, 이청용(이상 서울), 이근호(대구) 등 올림픽대표 출신의 젊은 피들을 과감하게 중용해 팀을 일신했다.

가장 생존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은 공격진이다.

지난달 11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 같은 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에서 합격점을 받은 이근호(대구)-정성훈(부산) 투톱 콤비에 프랑스 무대에 안착한 박주영(AS모나코), 부상으로 회복한 '원반 스페셜리스트' 염기훈(울산)까지 가세했다. 여기에 백업 스트라이커 서동현(수원)도 주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근호는 UAE전까지 A매치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뛰어난 골 감각을 인정받았고 장신(190cm) 공격수 정성훈도 포스트플레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박주영은 팀내 주전 자리를 굳히며 예전과 다른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염기훈도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부활을 일했다. 허정무 감독으로서



이근호



염기훈



이청용



박주영

박주영·염기훈 가세...선발 경쟁 치열

허감독 베스트 11 구성 '행복한 고민'

는 누구를 사우디전 선발로 투입할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허 감독은 선수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숨기지 않았다. '진흙 속에서 캐낸 보물' 정성훈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아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정성훈은 파트너가 이근호-박주영 중 누구이든 상관없이 사우디전 선발 출격이 점쳐진다.

박주영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 감독은 "처음 AS모나코에 갔을 때보다

좋아졌다. 골을 넣으려고 쇄도하는 움직임과 몸을 던져 헤딩하는 모습이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주영에게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허 감독은 "아직은 더해야 한다. 누구한테 받아먹으려 고만 하지 말고 (득점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이 없어도 위험이 되도록 자꾸 움직여야 하고 뺏기면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부상을 털고 허정무호에 재등성한 염기훈을 최전

방 공격수와 왼쪽 측면 미드필더 등 상황에 따라 투입하는 공격 옵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염기훈이 왼쪽 날개 박지성과 포지션이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포지션이 겹쳐도 뒤에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수 있다. 좋은 건 염기훈과 박주영의 가세로 경쟁이 된다.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 중 어디든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동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성을 키워야 한다"고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사우디전에 4-4-2 포메이션을 구상하는 허 감독이 골문을 열 투입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허정무 감독 "사우디 공격수 하하지 경계 1호"

골 결정력 좋고 측면 돌파 위협적

"문전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 사이드 쇄도는 더 위협적이다."

허정무(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은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마지막 훈련을 지휘한 뒤 20일 펼쳐질 사우디 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가장 경계할 선수로 신예 공격수 나예프 하자지(20·알 이티하드)를 꼽았다.

하자지는 훈련 중 부상으로 빠진 간판 공격수 아세르 알 카타니(25·알 힐랄)의 공백을 메우려고 투입된 약관의 스트라이커.

지난 8일 태국과 평가전에서 모습을 처음 드러낸 그는 선제 결승골로 1-0 승리를 이끈 뒤 나흘 뒤 바레인과의 평가전에서도 두 골을 사냥해 4-0 완승에 앞장섰다. A매치 두 경기에서 벌써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4-4-2 포메이션에서 파이살 알 술탄(23·사범)과 투톱으로 나서게 돼 알 카타니를 대신해 한국 수비진을 괴롭힐 최고 경계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선수인 알 카타니는 2005년 3월 사우디 담맘에서 열린 2006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에서 해골골을

넣어 0-2 패배를 안겼고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컵 조별리그(1-1 무승부)에서는 동점골을 터트리는 등 한국과 격돌할 때마다 인상깊은 플레이를 펼쳤다.

하지만 하자지가 그 공백을 메우면서 허정무호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하자지는 175cm의 크지 않은 키에도 태국전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사냥한 데 이어 바레인전에서도 전반 29분과 후반 11분 잇달아 골을 넣었다. 3골 중 두 골이 헤딩골이다.

하자지 봉쇄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강민수(전북)와 조용형(제주), 오른쪽 풀백 선발 출격이 유력한 이영표(도르트문트)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은 "사우디로 들어가면 훈련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수비훈련에 집중할 생각이다. 늦게 합류한 박지성과 이영표 등 해외파들은 몸 상태가 문제일 뿐 중전부터 훈련해왔던 국내 선수들과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S 모나코 박주영 페널티킥 유도 맹활약

팀 패배로 빛바래

10경기 연속 출전

박주영(23·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만회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맹활약했다. 하지만 팀 패배까지는 막지 못했다.

박주영은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렌의 루트 드 로리앙 경기장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 2008~2009 시즌 정규리그(리그1)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다. 프랑스 프로축구 데뷔 무대였던 9월14일 로리앙과 5라운드부터 정규리그 10경기 연속 선발 출전.

4승4무5패로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는 모나코는 올 시즌 1패(5승7무)밖에 없는 7위 렌을 맞아 전반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팀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 박주영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연합뉴스

모나코는 프레데릭 니마니를 최전방에 세우고, 박주영을 오른쪽 미드필더에 가깝게 배치하는 등 중원을 두텁게 했지만 시즌 상대의 과잉공세에 시달렸다.

결국 전반 42분 렌의 무사 소우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다.

모나코는 후반 시작하며 니마니를 빼고 알렉산드레 리카타를 투입하면서 박주영과 투톱으로 호흡을 맞추게 해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오히려 후반 9분 수비 실수로 지미 브리앙에게 추가 골을 내줘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박주영은 1분 뒤 렌의 페널티지역 왼쪽을 돌파하다 상대 수비에 밀려 넘어지고 나서 주심에게 달려가 거침없는 항의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 진출 후 처음 받은 옐로카드였다.

박주영은 후반 22분 상대 골키퍼까지 달려나온 상황에서 어렵게 머리에 갖다댄 공이 골문을 벗어나 아쉬워했지만 마침내 후반 36분 추격의 불씨를 살려 냈다. 카데르 망가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다.

키커로 나선 레안드로 쿠프레는 오른발로 차분하게 득점해 한 골을 따라붙었다. 이후 모나코는 활발하게 공격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해 결국 1-2로 아쉽게 무릎 꿇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박은경 女 개인종합 5위

아시아체조선수권

기대주 박은경(17·광주체고)이 제4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합 5위에 올랐다.

박은경은 17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 돔에서 끝난 개인종합 결승에서 도마-이단평행봉-광굴대-마루운동 4종목 합계 55,850점을 얻어 참가 선수 42명 중 5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개인종합과 단체종합, 마루운동과 이단평행봉, 도마 등 5개 종목을 휩쓸고 태극마크를 단 박은경은 상위권인 일본 선수들과 점수 차를 좁혀 여자체조의 부활을 이끌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베이징올림픽 개인 종합에 출전했던 조현주(16·화성여고)는 53,900점으로 7위에 올랐다.

일본의 쓰무미 고코가 59,700점으로 금메달, 우에무라 미키(22·일본)가 57,700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북한의 '떠오르는 별' 김은향이 58,300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박은경, 조현주, 김다은(16·화성여고), 한별(16·경기체고), 박하얀(16·대전체고), 한은비(18·서울체고)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212,050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금메달을 탄 일본(231,800점)과 20점 가까이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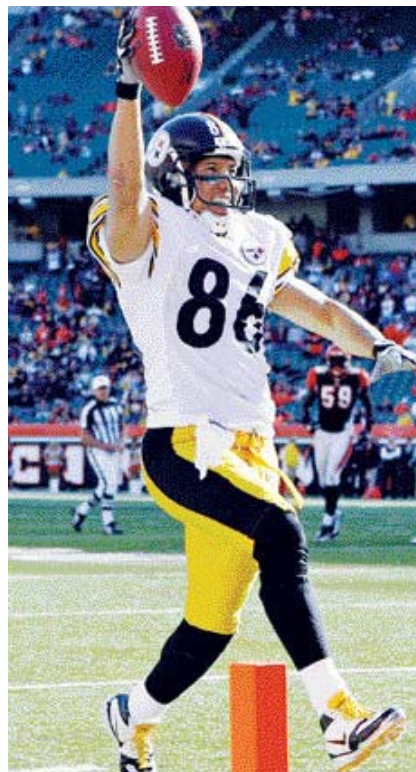
한편 전날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도요타컵 국제체조선수권대회에서



올 전국체전에서 5관왕에 올랐던 박은경.

김지훈(24·서울시청)이 철봉에서 16,250점으로 금메달을, 베이징올림픽 평행봉 은메달리스트 유원철(23·포스코건설)이 링에서 15,750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워드 124야드 전진 '시즌 최고'

팀 역전승 '일등공신'

미국프로풋볼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가 시즌 최고인 124야드를 전진하며 팀의 역전승에 힘을 보탰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스 필드에서 계속된 정규 시즌 10주차 샌디에이고 차저스와 홈경기에서 11번 패스를 받아 124야드를 전진했다.

이는 지난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전에서 기록한 112야드를 뛰어넘는 시즌 베스

트다. 10경기에서 681야드를 뚫 워드는 남은 6경기에서 319야드만 보태면 특급 리시버의 판단 기준인 1천야드를 4년 만에 넘는다.

피츠버그는 이날 8-10으로 뒤진 4쿼터 종료 11초를 남겨 두고 제프 리드가 32야드 짜리 필드골에 성공해 11-10으로 역전승, 7승3패로 아메리칸콘퍼런스 북부지구 선두를 지켰다.

이날 양팀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날씨 속에 고전했고 통틀어 나온 터치다운은 샌디에이고가 1쿼터에서 찍은 1개뿐이었다. 피츠버그는 필드골 3개와 세이프티(2점)로만 점수를 뽑았다.

워드는 21일 오전 10시15분 홈구장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벵갈스전에 출전한다.